



“남북미 3자회담 가능성도”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의 모습.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청와대

文대통령 “진전상황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그것도 군사분계선 남쪽 우리 땅에서 열리는 것은 사상 최초”라고 지적했다.

또 “남북 정상회담에 있어서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라는 목표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을 담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앞선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담아 국회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합의가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7년 10·4 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칭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지만, 결과가 어땠나”라며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정책은 남북 사이 합의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평양뉴스

미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예년 수준…모든 춘계훈련도”

미국 국방부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기간이 예년과 같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독수리 훈련을 비롯한 봄에 실시되는 훈련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로건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1일, 미국 측이 군사 훈련 일정이 예년과 비슷하다고 밝힌 이유는 봄철에 실시되는 훈련들을 포함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설명에 대해 “정확하다”고 VOA에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말한 훈련 기간은 봄철에 이뤄지는 모든 훈련을 뜻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한국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4월 1일부터 계획되는 독수리 훈련이 예년보다 1개월기량 적은 기간인 약 4주간 실시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훈련이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될 것이며, 북한 측이 연습 일정과, 연습이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임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례대로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정전협정 준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훈련을 참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평양뉴스

세기총, 이주민봉사단과 함께 밥 사랑 나눔봉사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세기총)는 지난 주에 제6차 총회와 대표회장 취임식을 마쳤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려움에 처한 자 등과 함께하는 것으로 그 첫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최근 서울역 부근 밥파봉사단 체인 신생교회에서 대한민국이주민(다문화가정)희망봉사단과 함께 밥파봉사를 가졌다.

이날 봉사는 세기총 여러 임원들과 사모들 그리고 지난해 세기총에서 조직한 “대한민국이주민희망봉사단”인 결혼이주민 여성 10명이 함께 봉사에 참여했다.

밥파봉사는 오전 11시에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와 함께 드리는 밥사랑 나눔예배”로 시작하였는데 기도에 김군배 목사(미얀마 선교사), 격려사에 원종문 목사(세기총상임회장), 봉헌기도에 나득환 장로(세기총법인감사), 인사 및 광고에 신광수 목사(세기총사무총장), 축도에 최나

신 목사(세기총 상임회장), 식사기도에 전영현 목사(세기총 상임회장)의 순으로 진행됐다.

설교는 세기총 제6대 신임대표회장인 정서영목사가 로마서 8:28의 본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예배에 이어 목도리와 세기총 상임회장인 최나신 목사가 후원해 준 알로에 에센스 크림을 참여한 봉사자들과 함께 일일이 나누어 주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이어 밥파봉사를 가졌다.

한편 세기총은 “이번에도 참여한 이주민가정들은 봉사를 통해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인 노숙자들을 섬기는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주민 가정들도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계속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나래 기자

한국 순교자의 소리, 24시간 위성 라디오 방송 개시

“한국 순교자의 소리의 사명은 기독교인 순교자들의 목소리가 침묵에 묻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위성방송은 박물관에만 머물던 순교자들의 설교와 이야기들을 들려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시아 전역의 남북한 기독교인들이 순교자들의 삶을 모범 삼아 배우고 그들의 가르침을 살아있는 메시지로 다시 한 번 들게 될 것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풀리 험수 대표에 따르면, 초대교회는 순교자를 세 종류로 분류했다. 빨간색 순교자, 초록색 순교자, 그리고 하얀색 순교자가 바로 그것이다.

“순교”라 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생각 합니다. 그러한 분들은 빨간 순교자입니다. 그러나 초록색 순교자와 하얀색 순교

자 또한 존재합니다. 초록색 순교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계획, 목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 말입니다. 하얀색 순교자들은 ‘세상’에 대하여, 즉 세상의 계획, 목표,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위성 라디오 방송은 이 세 종류의 기독교 순교자들의 가르침을 모아 송출한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10년 이상 가장 강력한 단파 라디오 주파수 중 하나를

북한에 송출해왔고(7510kHz 매일 30분 한국 표준시 00:30~1:00), 2018년 1월부터 AM 주파수를 추가로 송출했다(1431 AM 매일 30분 한국 표준시 23:00~23:30). 현

숙 풀리 대표에 의하면 아시아 전역에 늘

아나고 있는 한국인들의 위성 라디오 수신율에 맞춰 이 새로운 주파수가 설계됐다.

“이 위성방송은 아시아 전역에 있는 한국인들, 즉 남한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에게도 도달할 것입니다.”

여기 한국에서도 별도의 구독이나 결제 없이 C랜드 위성 접시를 통해 방송을 들을 수 있다. 아래에 방송 정보가 안내되어 있으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국 순교자의 소리 사무실(02-2065-0703)로 전화하면 된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새 위성방송 채널의 개시와 이 방송을 통해 조선어 스티디 성경 낭독 및 국제 오디오 성경 녹음 단체 ‘FCBH’(Faith Comes By Hearing,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가

극화한 신약성경 낭독이 한 달 동안 송출되는 것을 기념한다. 조선어 스티디 성경은 한국 순교자의 소리(02-2065-0703)를 통해 25,000원 이상의 기부금을 넣 경우 구매가 가능하다.

본 위성 방송의 많은 콘텐츠는 한국 순교자의 소리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VoiceoftheMartyrsKorea>)에서도 들을 수 있다.

위성 : ABS-2 @ 75도 동쪽
주파수 : 3740 MHz
편파 : 수직
FEC : 5/6
변조 속도 : 33 MS / s
총운혜 기자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우리는 하나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함께 개최되기를 바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 성명서

1. 올해 우리 30년 만에 다시 한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세 번에 걸친 옛 노력으로 이루어낸 도전의 결과이다.



NCCK 장애인소위원회 위원장 황재규 목사

평창 동계올림픽은 2월 9일 개회식부터 25일 폐회식까지, 패럴림픽은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면서 막을 내렸다. 육한의 평창에서도 수 많은 선수들이 경쟁 보다는 우정을, 결과보다는 과정 안에서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과 ‘열정이 우리에게 다가온다(Passion moves to us)’란 슬로건을 이행해 넘으로써 온 세계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가져다 주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남북 개막식 당시 입장과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여, 북측에서 선수단을 비롯한 대표단, 응원단, 예술단을 보내온으로써, 평창 동계올림픽이 명실공히 ‘평화의 올림픽’임을 세계에 널리 드러내었다.

2. 이제 오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49개국 570명의 선수가 참여하면서 또 다시 개막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첫 장애인올림픽을 개최했다. 당시 조직위는

원회와 보사부는 올림픽을 “극복의 올림픽”, “참여의 올림픽”이라고 명칭을 붙이면서 선전을 했다. 그러나 선수들을 제외한 장애인의 참여가 없는, 아니 참여할 수 없는 정상인(비장애인)의 차지일 뿐이며, 장애인 문제를 폐하고, 대한민국 400만 장애자의 실질적 복지 향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발견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장애인들에 대한 불평등, 차별, 소외의 근원은 장애인 당사자로부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극복이 방해를 받았고, 평등한 대우가 거절되었고, 참여 기회가 박탈되었다가 지금의 아픔이 누적된 것”이라는 주장들이 나왔다.

그리고 “이번 외부 요인의 주체는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국가와 정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과 복지담당자들의 무지 등으로 제도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3. 우리는 30년 한 세대가 지난 지금 2018년 패럴림픽에 49개국 570명의 선수가 참가(북한 선수 2명 포함)하는 것을 직면하면서, 장애인 선수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참여의 올림픽’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본 위원회와 함께 하는 교회 교우들 200여 명이 응원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참여하였다. 이번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한 장애인 관련 여러 단체들이 참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의 참여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제외되는 그룹들이 절대 다수였다.

그런데 이번 2018 평창동계 패럴림픽에서 우리는 작은 변화로 인해 큰 감동을 맛보게 되었다. 우리나라 대통령 내외가 모두 인증하다시피 비장애인들의 올림픽 경기는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거워하는 세계인의 축제이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패럴림픽은 쓸쓸하고 황량하기 그지 않았다. 보아주는 관중이 없어 참여하였다. 이번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한 장애인 관련 여러 단체들이 참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의 참여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제외되는 그룹들이 절대 다수였다.

일반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에서 참여하는 변화가 있었지만, 공영방송의 중계와 보도 질량의 절대적 부족으로 실망감을 금할 수는 없었다.

4. 또한, 88년 장애인올림픽 당시에 한장애인 선수의 증언에 따르면, “경기장 시설과 기자촌 등의 시설은 선진화 되었는데, 장애인 선수들의 모습은 후진화였다”면서, 당시 319명의 선수들 중 메달을 따지 못한 200여 명은 큰 좌절감에 빠졌는데, 이는 올림픽 정신의 하나인 ‘극복의 올림픽’이 아니라, 연금을 따기 위한 ‘방편의 올림픽’이었다.”는 고백을 했었다.

이런 증언에 대해 30년이 지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시행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과 권리 등에 있어 그 당시에 비해 큰 변화가 있지만, 패럴림픽 참여 장애인 선수의 양성을 위한 장애인(재활)체육 지도자와 시설(체육관 등) 확충을 통한 인프라 구축 문제는 여전히 시급한 사항이다.

5. 그러면서, 패럴림픽 운영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전환을 요청한다. 패럴림픽은 1988년 올림픽부터 동일한 장소와 시기에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하지만 비장애인들의 모든 경기가 끝난 후에 장애인들만 모여 하는 경기였다.

모두가 인지하다시피 비장애인들의 올림픽 경기는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거워하는 세계인의 축제이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패럴림픽은 쓸쓸하고 황량하기 그지 않았다. 보아주는 관중이 없어 참여하였다. 이것이 진정한 올림픽 정신인 ‘평등’, 즉 막힌 담을 허물어 장벽 없는(barrier free)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부단한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물로 하나님을 만드시기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에베소서 2장 14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3:28)

국가 기관들의 위험한 ‘성’인식, 모럴 헤저드(Moral Hazard) 조장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우리 사회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겹겹이 참여하여 온힘을 다해 응원해 줄으로써 수 많은 국내외 선수들과 응원에 참석한 이들에게 격려가 되었다. 또한, 수 많은 자원봉사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 8만 5천여 명의 패럴림픽의 평화로운 진행을 위한 체육작업, 이동, 안내 등의 협력이 있었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장벽을 허물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우리는 국제올림픽 위원회가 향후 올림픽과 패럴림픽 운영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전환을 해주기 바란다. 두 개의 올림픽이 아닌 하나의 올림픽 즉,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올림픽 개최를 요청하고자 한다. 어떤 그룹도 관심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비장애인들의 더 큰 관심과 배려 속에서 올림픽이 한발 더 도약하는 모두의 축제가 되기를 고대해 본다. 어떤 모임이든 상관없이 장애인이 배제 되어야 안 된다.

‘평등’, ‘참여’, ‘극복’의 올림픽 정신은 그 게임 진행에서부터 철저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패럴림픽이 없어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기간 안에 함께 하는 올림픽이 되길 소망한다. 이것이 진정한 올림픽 정신인 ‘평화’, 즉 막힌 담을 허물어 장벽 없는(barrier free)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부단한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2018년 국제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가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환대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금년 내에 헌법 개정을 통해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꿈으로써, 모든 인간이 소중한 존재임을 명확하게 선언해야 한다.

2.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사람에 대한 모든 차별과 혐오에 결연히 맞설 것이며, 모든 인간이 가진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회적 협력과 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3.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4.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5.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6.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7.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8.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9.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10.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11.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12.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13.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14.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15.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16.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17.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18.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19.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20.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21.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22.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23.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24.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25.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26.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27.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28.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29.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30.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31.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32.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33.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34.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35.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36.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37.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38.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39.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40.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41.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42.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43.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44.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45.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46.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47.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48.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자 범죄임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불편한 진실”

성서일과: 민수기 21장 4-9절, 예베
소서 2장 1절-10절, 요한복음 3장
14-21절



저는 오늘 봉
독한 성경을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
다.

첫 째는 사순
절의 한복판인
이 사순절 넷째
주일에 성서일과
는 하필이면 왜
이 구절을 배치
했을까하는 문제
입니다.

공관복음에는
사순절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
라가시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배치하면
서 사순절의 의미를 잘 정리하고 있지만,
요한복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 누
가 복음은 처음에 예수의 죽음을 설명하
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요한복음은 이와
는 달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계셨다는 말씀부터 시작합니
다.(요 1:1-5)” 좀 더 설명하면 공관복음
은 인간의 모습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하
나님이 되었는가를 변증하고 있지만, 요
한복음은 이런 변증적 설명 없이 예수님
께서 직접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 요한복음 2장에서는 하나님의 훈인간자
에 참여하신 뒤 십자가 사건의 직접적 계
기가 되는 성전 정화를 행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없는 요한복음은 왜 사순절 한복판에 본
문으로 배치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미투
(# Me Too) 운동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
인가. 또 이 문제를 성경 말씀과는 어떻
게 연결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얻은 결과는 이렇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한국사에서 암울했던
시절의 한 이야기, 당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인권을 무시했던 보안사에
끌려갔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보안
사는 그 청년에게 회유와 협박을 합니다.
“우리에게 협조를 하면 궁핍한 집안 살림
도 도와주고, 유학도 보내 줄 테니 우리
의 프락치가 되라. 그렇지 않다면 너 하
나 없애서 처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

니다. 잘 선택하라.” 지금이야 아이없는
짓이지만 군사독재가 이어지던 당시는 권
력기관의 일은 불법도 정당화되던 시절입
니다.

고민하던 이 청년은 NCCK를 찾아 양
심선언을 결심합니다. 당시 NCC 인권위
원회 사무국장이었던 제 입장에서는 찾아
온 청년의 말을 고스란히 믿기가 어려웠
습니다. 혹시 보안사의 역공작일수도 있
다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믿을 만한 사람들과 2-3일 함께 지
내면서 진위여부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었습니다. 관찰결과 이 청년의 결심은 진
정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후일답이지만
이런 결심을 했던 청년은 죽을 용기를 내
어 NCC를 찾아 갔는데, NCC가 자신의
진정성을 의심하더라고 말합니다. 저는 당
시의 불법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고발과
정을 보면서 최근의 미투 운동과 견주어
봤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고발하고 있
는 여성, 그 여성은 자신의 미래에 어떤
희망을 걸고 있을까를 생각해 놓았지만,
나 역시 다른 여성에게 피해를 준 일
은 없었을까’ 하는 자기검열도 일어납니
다. 혹시 내가 여성들에게 성차별적인 편
하 발언은 하지 않았는지? 남자는 보파
리도 들지 않아야 한다고 하시던 어머니
의 생각이 고스란히 남아서, 여성에게 말
은 근사하게 하지마 은근히 남성 우월감
을 드러내지는 않았을까?

미투 운동에 대한 논쟁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들
이 모두 진보적 인사들인 점에 비추어 기
획설이 펴지기도하고, 지목된 어떤 사람
들은 억울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Me too) 민중들
이 촛불로 권력을 무너뜨렸듯이, 기존에
용인되어 온 불공평한 사회를 다시금 한
번 더 바꾸자는 촛불입니다. 즉 일들의 반
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투 운
동을 적극 지지하면서, 스스로도 삼가 조
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습
니다. 또 요3:16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
처럼 사랑하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굽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 출애굽 초기에는 마른 빵도 먹고, 무교병도 먹고, 하리에 땅을 두르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희망도 넘칩니다. 그러나 점차 여정이 만만치 않음을 알게 됩니다. 애굽 왕이 막아서고, 가다가 보니 먹을 것도 떨어지고, 춥고 뜨거운 광야생활이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이 대목을 민수기는 우리 그 때는(애굽
에서는) 먹을 것도 있었고 배는 굶지 않
지 않았다. 여기 애보니 고통의 길인데,
이 길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며 하
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민 21:5). 또 그 원망하던 사람
들이 뱃에 물려 죽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청동뱀으로 구
원해 주십니다(민 21:6-9).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합니다. 불평하
다가 뱃에 물려 죽은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이 크다고 표현합니다(시
107:17-22)

서신서의 예배소 사람들은 또 이렇습니
다.

예배소 교회는 이방인들과 이방인 아
닌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때문에 교
회 내에서 종족 간에 갈등이 생긴 듯합니
다. 종족의 차이, 신앙 때문에 교회가 나
뉘자 바울선생은 하나가 되라고 권면합
니다. 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예배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예배소 사람들 입장에서 생
각하면 이렇습니다.

난 이방인이고 유플도 몰랐고 아무
것도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
다.

그랬더니 이제는 날더러 유대 유플도
배우라고 한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유대
유플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 바울은, “너희들이 예
수를 믿게 된 것은 유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합
니다.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대로 선한 생활
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
하신 작품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
으로 이뤄진 것이기에 아무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
는 것이다.

또 요3:16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
처럼 사랑하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을 일으킨 여성
들의 모습. 타임지의 커버 모델이 됐다.

온라인 캡처

떻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극치
를 보여줍니다. 또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때로 주춤거리고 힘들 때에도, 이것은 너
희들이 하는 일이고 너희들의 의지로 이
뤄진 것 아니라 하늘의 뜻으로 이뤄진 것
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광화문에서 큰 시위가 있습니
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을 기념
(?)하면서, 이른바 태극기 부대들이 “(그
동안)달라진게 뭐냐. 여전히 똑같지 않나?
너희들이 대통령도 탄핵하고 난리 피웠는
데 뭐가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주장을
봅니다.

이처럼 과거를 회상하며, 그 과거를 아
름답게 꾸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
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의 고달
픔 때문에 미래로 가는 길을 머뭇거리면
서, “아! 애굽에 사는 동안 비록 자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기름진 고기도 있었고,
포도주도 있었다. 그때 우리는 적어도 마
른 빵은 먹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중에 니고데모라는 인
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능력있는 사
람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생’이라 표현한 것 보면 바리새
파이고, 학식이 높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
왔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

니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거듭나야, 즉
다시 태어나야 날 볼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이란다.” 공관복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
게 ‘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하자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의외의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메시야에게는 비밀이 있
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다.
왜 나를 보고도 못 믿느냐?” 이렇게 직접 말하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 니고데모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이것 봐라!”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는 것이 거룩한 전통이
생각했던 당시입니다. 이 시절에 예수를
보니 참 멋진 사람 같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 것 같다고 인정
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인네” 너 뚝바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닉네임을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오래 계속됐고, 그 오랫
동안 군사독재가 이뤄지면서 많은 사람
들이 혜택을 입고, 권력을 유지하고, 그
가운데 공부도 많이 하고 학문적으로 잘
정리해 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문
민세대는 혼란이었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세대를 보는 그들의 눈은 어떤
까요? 웃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착해
보이기는 한데, 과연 국가 운명을 잘 할
수 있을까하는 의심의 눈으로 봅니다. 그
러나 큰 잘못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제법하네’ 까진 인정할 수 있지만 세상을
확 바꾸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은 여전
합니다. 특히 ‘기득권의 입장에서 풀들이
작은 반란까지는 조금 양보하겠지만, 그
동안 각인시켜온 기준 질서에 여자들마저
나서서 이렇게 반항을 한다는 것은 아니
지 않은가?’

저는 여기까지가 니고데모의 마음과 같
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도 혹 니고데모의 마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민수기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차라리 이
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과 우리
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해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려느냐?”고 수줍게 물지 않습
니다. 직설적으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왔는데 날 풀라보느냐?”하고 질책하시
듯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을 향해서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별씨 줬을 것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
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는 어두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세상으로 살라는 교훈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밝은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밝은 세상이 오는데 거역하는 사람
들 되지 마시고, 뱃에 물려 나중에 하나님
잘못 했다고 벌지 암시다. 우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여성들의 저런 고통을 진심으로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고, 우리도 그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을 즐거워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세상 구원이 올 것
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나마 불편함을 느끼기
도 했던 미투 운동으로 유명 정치인들도
단숨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
을 했습니다.

그렇다. 민중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은
정치인들이 잘나서 들어 준 것이 아니
다. 소위 진보적 정치인들, 당신네가 잘나서
민중들이 촛불을 든 것이 아니라, 민
중들이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그 덕을
본 것일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
가 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따라서 진보적 정치인들은 민초들이
촛불을 든 것이 하늘의 거룩한 뜻이었으
며,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자기 고백
을 먼저 해야 한다. 아울러 민중들의 촛
불을 자신에게, 정당에 유리하도록 활용
하면서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는 경고
의 메시지로도 해석해 봅니다.

어쨌든 촛불 들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덕을 많이 봤잖아요? 지도자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덕을 봤는데 이 덕을 너희
들이 잘해서 그걸 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
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3:16의 말씀을 다시 되새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
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이
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 믿
으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노력하는 신앙인의 자세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늘 무릎 꿇어 하시고,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뜻이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
고 있는지 잘 판단하는 빛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귀한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 설교는 지난 2018년 3월
11일 ‘함께 하는 예배’ 공동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예배 설교문입니다.

[아침을 여는 기도] 내 가슴에 사무치는 주의 음성

사람의 하나님!

저 자신이 판단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아는 척, 보는 척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이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배척
하고 진실을 호도하였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저의 시각을 활하게 넓혀
주옵소서.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요9:41)

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유플을 기준으로 예수
를 죄인으로 매도한 바리새인과 같이 세
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눈먼
길잡이들이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
하면 둘 다 구령에 빠진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지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였습
니다. 위선으로 세상에 어떤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리지 못하고 도리어 죽이
고 있습니다. 차라리 보지 못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을, 저는 본다고 안다고 하여서
저의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의 빛이십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봄날의 새
생명이 저의 가슴속에도 찾아오게 하
옵소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서 생명입니다. “소리 없이 보슬보슬 내
리는 저 불비처럼 내 가슴에 사무치는 주
의 음성 고마워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옵소서. 십
자가는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
옵소서. 봄날 피어나는 싱그러운 꽃들이
저의 마음속에도 피어나게 하옵소서. 새

봄에는 꽃같이 예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삶도 사람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나날이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연요한 목사는 숭실대, 숭의여대 교
목실장과 한국기독교대학교교목회장을 역
임하였다. 최근 저서로 ‘사순절의 영성’,
‘부활 성령강림’ 등이 있다.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할아버지의 코트

이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잘 만난 코트 한 벌.
할아버지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남고 해져서 더 이상 못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버렸나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글쎄, 남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도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네티아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가 그때마다 이렇게 의쳤어요.
“아무렴, 여전히 쓸 만해.”

하고, 오래되고, 물품 많아지면 소홀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전해지던 명품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 한예 디자이너·보자기 아티스트 이호재